

투데이 칼럼

브랜드로 부자시대

현대는 이미지시대, 외모 중시 사회시대, 감성과 표현시대 등이므로 한마디로 매력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매력자본'의 저자 캐서린 하김도 "매력적인 남성이 14~28% 매력적인 여성이 12~20%의 돈을 더 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각자의 다면적인 '매력' 요소를 폭넓게 인정하고 이것을 열심히 갈고 닦을 때 '자본과 아름다운 결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문제는 내면의 멋보다 겉모습을 중시하고 거기에 매몰하는 사회 풍조다.

외모가 인생의 성과까지 좌우한다고 믿고 집착하는 것은 병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이 전세계 상위권의 성형수술국인 것도 이런 강박관념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즈먼이 현대인을 '타인지향 인간'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듯이 과거에는 인종과 성, 종교, 이념 등이 불평등을 초래했지만, 21세기는 외모가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말이다.

내면 성숙보다 외모성형에 치우치는 사회에서도 겉모습이 모든 평가를 뒤엎는다. '얼굴'이라는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미국의 대니얼 맥닐은 그의 저서를 통해 관자들은 재관에 일할 때 미소를 짓는 피고인, 인상이 좋은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심리학자 멜리비언도 스피치의 효과면에서 시각적인 몸말이 55%, 청각 38%, 언어 7%를 발표했다.

또한, 지적인 매력을 지닌 아내 운서는 목소리가 좋고, 얼굴과 표정이 좋고 몸매가 좋은 덕분에 실제보다 지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들의 말에 우리는 신뢰를 갖는다.

세일즈맨에게는 '전화기 앞에서 절을 하라'는 교육을 했듯이 좋은 모습의 좋은소리를 내라는 의미다.

첫인상은 비즈니스의 성과를 좌우하는 요소이므로 생김새, 표정,

복장, 말투는 중요하다.

그러므로 세일즈맨에게는 외적 요소인 몸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인가?

대학생들에게 "외모 콤플렉스를 갖고 있느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려 80.5%가 '그렇다'고 답했고 "외모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느냐"는 62.5%도 이미 10년에 답했다고 한다.

영국과 미국, 아르헨티나의 대학생들도 외모 프리미엄은 대략 15% 매력적인 사람들의 소득이 15%정도 높고 취직률도 10% 높았다는 것이다.

부자들이 자산관리를 고를 때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얼굴 쪽에 더 많은 돈을 맡겼다고 한다.

결국 일상의 판단과 선택을 합리성보다 직관에 좌우된다는 의

미다. 이제 우리도 법무부가 곧 '인격표시영리권'을 넣어 민법을 고쳐려고 한다.

이미 미국 36개주와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이 인정하는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퍼블리시티권과 많이 혼동되는 권리가 저작권인데, 이것은 초상권, 음성권, 실명권뿐 아니라 특색있는 몸짓, 말투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유명배우의 말투, 행동, 개그맨의 유행어를 성우 등 다른 사람의 성대모사를 상업 광고에 사용하게 되면 보상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다.

결국 이 법으로 일반인도 유튜브 브, 동영상, 특이한 행동 등으로 '비타스타'가 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자신만의 브랜드로 돈도벌고 유산으로도 물려줄 수 있는 시대가 온다. 표현의 종합학문인 스피치학으로 특히, 별난 몸짓 말투 등도 돈 받고 파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나의 브랜드화로 부자시대를 만드는 표현의 종합적인 학문 스피치학을 더욱 학습하여 행복한 성공자가 되어보자.

사설

전주시 중앙버스차로 추진

전주시가 시내버스 도로 중앙 전용차로 통행 이른바 '간선급행버스 체계' 즉 BRT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버스의 편의성을 높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인데, 자칫 불편만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BRT에서 승객들은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정류장에서 버스에 타고 내린다. 전라북도가 BRT 개발 계획을 공고한 데 이어 전주시도 올해 안에 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5년까지 기린대로 10.6km 구간에 전용 차로와 정류장을 설치하고, 2030년까지 백제대로와 송전중앙로 일대가 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시내버스 노선의 신속성으로 시민들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권이 활성화되는 도시재생 효과도 있다. 하지만 기린대로에만 412억 원의 사업비가 드는 대규모 사업인데다 기존 승

용차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될 있다.

전주시 용역 결과를 보면, 버스의 평균 통행 시간은 기존 33분 40초에서 29분 50초로 고작 4분 40초 단축된다. 전용차로를 확대한다고 해서 기존 승용차 운전자들이 시내버스로 옮겨갈 것이라는 건 막연한 기대다.

전주시 교통 문제의 핵심은 출퇴근길 타 시군을 오가는 구간의 교통 체증이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보면 주로 광역 BRT이다. 도시 내부의 BRT가 아니다. 차라리 버스를 늘려서 환승을 적게 하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를 확대시키는 것이 좋다. 교통 체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와 공감대가 중요하다.

대중교통 체계의 변화에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교통 불편만 가중시킬 수 있다. 기대 효과에 대한 세밀한 검증과 논의가 필요하다.

전북 헬기장 농가 피해 속출

지난 4월부터 '전북소방 헬기 2호'가 정식으로 출동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런데 전용 헬기장이 민가와 불과 백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이착륙을 할 때 마다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헬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을 시도하면 상공에 머물면서 방향을 잡고 떨어질 때까지 때때로 러갈 듯한 소음은 계속된다. 한 번 뜨면 20분 정도 들리면 서 대화가 불가능하다. 100m쯤 되는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취락 때마다 흙바람까지 일으키고 있다. 헬기가 뜨면서 사람이 3~4m 밀려가기도 한다. 바람을 일으키면서 들게 농사를 못 지겠다는 농민도 있다.

전체 20여 가구, 주민 40여 명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 앞으로 헬기장이 옮겨진 건 지난 5월 9일이다. 6년 전 소방안전타운 조성이 추진되면서 우선

소방헬기가 먼저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헬기장과 피해 농가의 밭은 불과 두 발자국 밖에 되지 않는다.

주택들과 거리도 150m 남짓이지만 방음벽, 방풍벽 하나 설치돼 있지 않다. 지난 두 달 동안 해당 헬기가 출동한 횟수는 모두 40여 건이다.

15일에 한 번 꼴로 출동한다. 측정된 소음은 약 95 데시벨, 밤낮 가리지 않고 기차가 지나가는 것과 맞먹는다. 집이나 시위를 벌일 때 경찰이 단속하는 소음 한계가 65 데시벨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민가와 헬기장의 이격거리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이다. 군사용 헬기의 경우 보상 등 조치가 규정돼 있는 것과 달리 소방헬기는 해당되지 않아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규정상 조치 의무가 없었던 소방본부 항공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대책 마련을 서두르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백조의 호수' 공연하는 '맨 인 튀투스'



18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시우디드 에스페란사 이리스 극장에서 남성 코미디 발레단 맨 인 튀투스(Men in Tutus) 단원들이 '백조의 호수'를 공연하고 있다. '튀튀'는 발레용 치마라는 뜻으로 '맨 인 튀투스'는 남성으로만 구성된 발레단이다.

악수하는 블링컨-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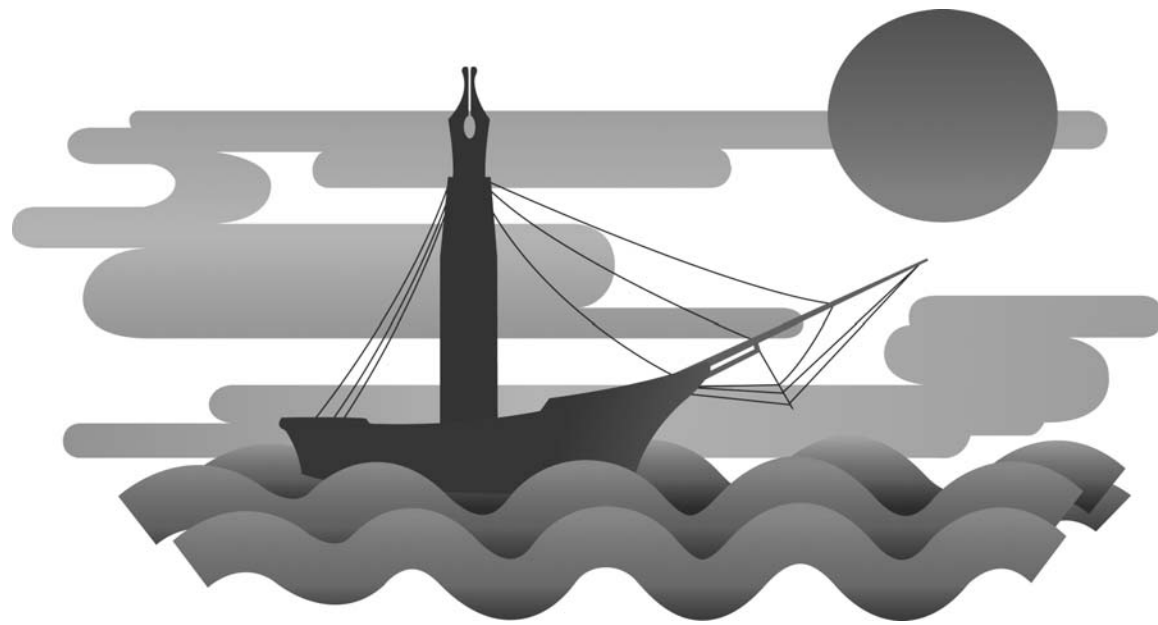
토니 블링컨(왼쪽) 미 국무장관이 19일 중국 베이징의 영빈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과 악수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